

인류의 혈관 속엔 동물적 본능이 흐른다

방송작가 차윤희씨가 뽑은 데즈먼드 모리스의 『머리 기른 원숭이』

“우~ 아~ 우아~ 퀴즈 탐험 신비의 세계….” 귀에 익은 음률에 맞춰 웃깃을 한껏 치켜세워 멋을 낸 듯한 목도리도마뱀이 사막을 달려간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나 좋아하는 TV 프로그램, 아나운서가 쏟아내는 감칠맛 나는 입담이 일품인 KBS 1TV 〈퀴즈 탐험 신비의 세계〉는 이제 장수 프로그램의 대열에 들어섰다. 차윤희씨(38)는 바로 그 화제의 프로그램을 장장 18년 동안 이끌어온 베테랑 구성작가다. 서당개 3년이면 풍월을 짚는다는데, 20여년 동안 우직하게 한 우물을 파온 그이니, 이젠 방송작가보다 동물전문가라는 이름이 더 울릴 듯하다. 그가 서가에서 뽑아든 책은 인간을 동물학적으로 분석해 논란을 일으켰던 데즈먼드 모리스의 『머리 기른 원숭이』(황현숙, 까치)다.

“동물 프로그램을 오랫동안 꾸려오다 보니 인간에 대해 좀더 알고 싶었어요. 인간도 여느 동물과 다름없는 자연의 일부고 자연 속에서 생활하는 개체기 때문이죠. 이 책은 동물행동학자인 저지은이가 ‘인간은 동물이다’는 전제 아래 인간의 행동을 관찰자의 눈으로 들여다본 흥미로운 연구서죠.”

처음엔 18년이라는 경력을 감안해 그가 최소한 40대 중반쯤은 됐을 거라 짐작했다. 하지만 밝게 웃으며 현관문을 열어준 그를 본 순간 예상은 빗나갔다. 게다가 이방인을 보고도 낯가림조차 않는 아기를 보니 더욱 그렇다. 하지만 그와 허물없이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궁금증은 쉽게 풀렸다. 대학시절부터 남다른 필력을 인정받았던 그가 졸업도 하기 전에 방송국밥을 먹기 시작한 것. 8



“이 책은 인간의 동물적 본성에 대해 수치심을 느끼는 대신 존경심을 품어야 한다고 주장하죠. ‘나는 누구인가’ 하는 본질적인 의문을 품게 하는, 이를테면 인간의 동물학적 초상화인 셈이죠.”

백회 남짓 동물이야기만 해왔으니 이제 소재가 바닥날 때도 되지 않았나 싶은데, 지금까지 보여준 전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자신한다. 꾸밈없는 동물들의 세계를 통해 인간의 삶을 반추할 수 있어 소재는 무궁하다고 말한다.

“인간은 동물과 확연히 다른 종이길 원하지만 그 본질은 동물과 많이 닮아 있어요. 이 책은 인간의 동물적 본성에 대해 수치심을 느끼는 대신 존경심을 품어야 한다고 주장하죠. ‘나는 누구인가’ 하는 본질적인 의문을 품게 하는, 이를테면 인간의 동물학적 초상화인 셈이죠.”

의인화하지 않은 동물들의 진솔한 삶을 보여주자. 이것은 그가 18년 동안 지켜온 모토이자 〈퀴즈 탐험 신비의 세계〉가 장수할 수 있었던 비결이다. 앞으로 그는 이 프로그램을 환경파괴로 사라져가는 동물들, 동물들의 모듬살이에 초점을 맞춰 생명존중을 실천하는 프로그램으로 키워갈 생각이다. — 박옥순 기자

어린이 전문서점

드림북캠퍼스서점 프랜차이즈 가맹점모집

인터넷서점의 등장으로 off-line 서점은 과거와 같은 마케팅 전략으로는 생존이 힘들어졌습니다. 일찍이 저명한 경영전략 저술가인 오마에이이치는 전문화만이 무한경쟁시대의 유일한 생존전략이라고 예견했습니다. 드림북캠퍼스는 인프라비용의 파격적 절감, 지역서점보다 우위에 있는 메이저 브랜드 확보, 인터넷 서점보다 낮은 Price 정책으로 성공적인 1호점 /2호점을 출범시켰습니다.

어린이 전문서점에 관심을 갖고 사업을 영위할 의사가 있는 여러분의 상담을 기다리겠습니다.

<드림북캠퍼스서점의 특화전략>

1. Low Pirce를 지향합니다. 또한 최상의 제품 구색을 지향합니다.
2. 차별화 전략이 아닌 전문점을 지향합니다.
3. On-line과 연계한 수익 창출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4. 오랜 출판유통경험을 가진 베테랑 유통전문가가 포진해 있어 지역내 경쟁 서점보다 지속적인 가격우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5.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하는데 있어 수반되는 제반비용(컨설팅비용포함)이 저렴합니다.
6. 드림북캠퍼스서점은 금융전문회사인 (주)디지털마니캡의 사업부서로 파이낸싱에 능한 재테크 전문가가 있어 경영분석에 있어 수준 높은 컨설팅이 가능합니다.

상담 : 구본창 이사 / ☎ 02)567-2508

